

“중·고배구 지존 가리자”

강진서 16~22일 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전국 31개팀 700여명 열전…郡, 의료지원 등 만전

'전국 중·고배구 최강 가린다'

제4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강진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1개팀 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간 쌓은 기량을 겨룬다. 중학부 16개팀(남자 12, 여자 4), 고등부 15개팀(남자 10, 여자 5)이 각각 참가한다.

중학부는 16일 오전 10시 강진여중체육관에서 경복사대부중과 강원설악중경기를 시작으로 16개팀이 풀리그로 펼쳐진다.

중학부는 16일 오전 10시 강진여중체육관에서 경복사대부중과 강원설악중경기를 시작으로 16개팀이 풀리그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중학부에서 문흥중과 체육중이 참가한다. 전남은 고등부에서 목포여상·별교재일고·순천재일고, 중학부에서 영화중·팔마중·과여중·담양중이 출전해 기량을 발휘한다.

고등부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송립고와 순천재일고의 대결을 시작으로 3개조로 나뉘어 리그를 거친 뒤, 각 조 2개팀씩 결승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게 된다.

한편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결승전은 SBS-TV를 통해 오는 22일 낮 12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학금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의료지원반, 자원봉사반, 교통통제 및 안내 대책반 등 경기장별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장소인 체육센터와 강진여중까지 오가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선수와 일원들의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와 일원,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강진을 찾아 약 8여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결승전은 SBS-TV를 통해 오는 22일 낮 12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주 장용호 전남 소미금

우슈 '태극마크' 영예

대한우슈협회는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우슈 국가대표 20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루로 부문 남자부에서는 이종찬(강원)이 장권·도술·곤술에서 태극마크를 달았고, 김태호(충남)는 남권·남곤, 장용호(광주)는 태극권·태극검, 유경환(대전)은 남도에 선발됐다.

여자부에서는 서희주(전북)가 장권, 검술, 창술에서 출전권을 얻었고 임성은(전북)은 남권, 남도, 남곤, 태극권, 태극검에서 한 자리를 꿰찼다.

산타 부문 남자부에서는 낮은 체급부터 배상훈(강원), 정지현(경기), 이호준, 김진혁(이상 서울), 현창호(경기), 유상훈(경북), 김명진(서울), 김한민(경기), 이상정(경원)이 명단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낮은 체급부터 김희준(서울), 김인혜(경기), 소미금(전남), 이선민(서울)이 선발됐다.

산타는 일대일 격투이고 투로는 활비홍처럼 연기를 펼쳐 평점으로 우열을 가리는 경기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노진성 볼링 銀

조대부고 노진성이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볼링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

.

노진성은 13일 경기 성남탄천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개인전에서 선전을 펼쳤으나 김연삼(서울명지고)에 뒤져 아쉽게 2위에 그쳤다.

또 최우섭(첨단고)은 노진성에 이어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 사격 여단체전 銅

광주체고 사격팀이 제32회 총무기 전국 중·고사격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13일 경북 포항사격장에서 열린 여고부 단체전에서 김웅경·김정원·백현진·윤혜진이 출전해 1전173점을 기록, 경남체고(1전187점)·천안여고(1전179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근대5종 銅

광주도시공사가 제27회 회장배 전국 근대 5종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3일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4종 릴레이 경기에서 김상원·이중협·유창용이 출전해 4전352점을 기록, 삼무(4전692점)·경산시청(4전636점)에 이어 동메달에 그쳤다.

4종릴레이는 3명의 선수가 웬싱·수영·육상·사격 4개 종목을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경기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초·중학교 체육팀 창단 러시

문산초·우산초·송정중·운남중 등

4개교 5개팀…학교체육 활성화 기대

광주 지역 초·중 4개교에서 5개팀이 이달 중 잇따라 창단 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14일 문산초·양궁팀 창단을 시작으로, 15일 송정중·장운중 허가·레슬링, 17일 운남중 사이클, 19일 우산초·농구팀이 각각 창단식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제육회 관계자는 “잇단 팀창단에 따라 초·중등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선수들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소년체전·전국체전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을 기대된다”며 광주체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봤다.

창단팀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문산초·양궁=최용상·감독, 노슬기

코치, 오영권·양동혁·김태영·심승중·이

창민·정찬진 선수. ▲우산초·농구=장현

교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도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또 학생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제육회 관계자는 “잇단 팀창단에 따라 초·중등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선수들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소년체전·전국체전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을 기대된다”며 광주체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봤다.

창단팀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문산초·양궁=최용상·감독, 노슬기

코치, 오영권·양동혁·김태영·심승중·이

창민·정찬진 선수. ▲우산초·농구=장현

철 감독, 윤경병 코치, 박겸·김경천·김민우·김민형·이창훈·이동률·백현수·이승훈·최정재·김준서·과경도·류태영·오창민·박민열·김동수·정찬빈·천현승·이도원·김진우·정진재·류원역 선수. ▲송정중 허키=양준호 감독, 양승환 코치, 김진아·곽선미·김도희·김아름·김푸름·박지혜·박소현·유유미·이재경·임지수·김혜미·김혜진·문하은·손자혜·이예진·전슬기·정선경·현설희 선수. ▲송정중 레슬링=최창용 감독, 노일권 코치, 김준영·김한준·박민종·오상재·정우진·김준·조윤성 선수. ▲운남중 사이클=장재원 감독, 김영복 코치, 윤진규·정찬우·김준선·정진오·김규성·이태운·김준형 선수.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현대차, 김연아에 제네시스 등 차량 지원

현대자동차는 공식 후원 중인 ‘피겨여왕’ 김연아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과 제네시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지점에서 회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김연아는 이에따라 향후 약 5개월간의 국내 체류기간에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을 타게 되며, 주요 체류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기존에 훈련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베라크루즈 외에 제네시스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현대차는 5개월 후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을 친필 사인과 함께 재판매하는 자선 경매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피겨 스케이팅 세계정상에 오른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초일류 자동차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의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 찔러준 공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차 넣어 UAE 골망을 훔쳤다. 이날 승리로 2승1무가 된 한국은 독일(2승1패)을 제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독일과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고, 이집트와 2차전에서는 1-1로 비겼다.

이종호는 독일과 첫 경기에 이어 이날도 결승골을 뽑아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인간새’ 부브카의 한수지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수석부회장으로 제2차 IAAF 조정위원회 참석자 대구를 방문중인

‘인간새’ 세르게이 부브카(우크라이나·원쪽)가 13일 대구체육고에서 장대높이뛰기 꿈나루무에게 월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맹활약…한국 U-19 축구 우승

<광양제철고>

광양제철고 이종호가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종호는 12일(이하 한국시각) 밤 UAE 알 아인의 알 카타라 경기장에서 열린 UAE 4개국 대회 3차전 UAE와의 마지막 경기에

서 전반 8분 결승골을 터뜨려 1-0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 8강 주역인 ‘광양 루니’ 이종호는 김현성(고려대)이 폐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

서 찔러준 공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차 넣어 UAE 골망을 훔쳤다. 이날 승리로 2승1무가 된 한국은 독일(2승1패)을 제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독일과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고, 이집트와 2차전에서는 1-1로 비겼다.

이종호는 독일과 첫 경기에 이어 이날도 결승골을 뽑아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표팀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토고대표팀 주장 아데바요르는 13일 오전 (이하 한국시각) 맨시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아프리카네이션스컵 때 암콜라에서 내 동료 두 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은퇴 선언의 배경을 전하고서 “국가대표팀을 떠나기로 한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김연아에 제네시스 등 차량 지원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8-5008

주유소부지 금액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령면
칠령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위 910㎡

■ 특징

- 주유건축설 허가 등

- 도로접근 허가 등

- 마포지역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 2010년 8월 원공 칠령농공단지 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80㎡)

■ 대지: 약 950㎡